

를 맺는 것과 같이 새로운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을 때 새롭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유혹의 욕심으로 인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행동도 바뀔 수 없습니다. 2022년 새해에는 먼저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행함이 따르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 참된 것을 나타내는 삶입니다(24절).

본문에서 말하는 참된 것은 의와 진리를 뜻합니다. 의(義)는 옳음을 말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상반절에는 의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또한 하박국 2장 4절 하반절은 기록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義)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참된 것을 의미하는 진리(眞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동시에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올 한해는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롭고 참된 것을 나타내는 새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합심기도 온 가족이 함께
- 찬 송 559(통305)장 다 같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주님의기도 다 같이

2022. 2. 1.

설 가정 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 동 교 회

담임목사 : 김승학 목사

우 36691 경북 안동시 화성동 서동문로127

전화 (054) 858-2000, 2001 / 팩스 (054) 858-2002

홈페이지 <http://www.adpc.or.kr>, Email adpc2000@hanmail.net

블로그 <http://blog.daum.net/adpc2000>

유튜브 “안동교회”, 카카오톡 채널 “안동교회”

◎ 설 가정 예배 ◎

코로나19의 어려움이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부담이 있긴 하지만 이 시간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조상들의 은덕을 기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찬 송 384(통434)장 다 같 이

1.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x2)
2.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같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x2)
3.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 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때에 영영 부를 나의찬송 예수 인도하셨네(x2) 아멘.

●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이

● 기 도 가족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세가 심각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여러 면에서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일상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임을 알기에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치유의 하나님, 올해는 모든 것이 회복되어 일상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되 말씀의 회복, 기도의 회복, 그리고 믿음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의 삶을 회복하여 안동을 예수 마을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 구성원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성경봉독 앱 4장 22~24절 자녀 중에서
²²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²³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²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 설 교 새롭게 되는 가정 설 교 자

2022년 새해, 설날이 밝았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년(年)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묵은 것 보다는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롭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겉만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은 변하지 않고 겉만 좋아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겉 뿐 아니라 속, 즉 전체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새로움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새롭게'는 질적으로 전체가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도 속도 모두가 새로워져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워지려면 옛것을 버려야 합니다. 새 옷을 입으려면 더러운 옷을 벗어 버려야 하듯이 옛것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마음과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22, 23절).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생각과 같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행실도 자연스럽게 새롭게 됩니다.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씨를 뿌리면 나쁜 열매